

# 아 내 의 탄 원 서

지청장님 읽어 주십시오

공무로 바쁜살을 앞면서도 생면부지의 지청장님께  
말채 불구하고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redacted] 중학교  
교사 [redacted] 씨의 아내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청장님 !

한가정에 운이 다하여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  
이 뒤덮어 물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때문에 걱정이면 간천이란 말이 있고 호작은 하늘이  
도운다 했는데 호심이 지극한 애기 아버지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는지요

사회가 원망스럽고 진실을 불러주는 사람들  
한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분의 찬란한 마음을 하면 할우  
있는지요

지청장님 !

그분은 [redacted] 남편인 형제남매에서 둘째를 태어

내서 [redacted] 저의 시아버님은 6년전 사망사건관리소

에서 형생을 사망사건만 하시다 돌아가셨읍니다

상주조에서 사망사건을 잘 하시어 신심부하이



2

많은 공은 세우셔서 상도 많이 타셨습니다  
 말한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유일하게 애기 아바 안은  
 대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동훈에 땅 얼마지기를  
 찾아 댔은 것입니다 병과를 전공한 것이 부 보의  
 기대를 벗어나서 교사로 바뀐 것입니다  
 가난한 교사 생활에 많은 동생들의 교육 회와  
 각종 대사를 혼자서 처리해 오다 보니  
 적금 한번 해본적 없습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 딸만  
 낳아서 과하게 8입니다 이제 아들이 10살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돌봄겨루미 없이 거해 장남의  
 형세를 해온 것입니다 3년전 바로 밑의 시동생이  
 간염으로 병이 들면서 죽은사람을 처리가던 상태  
 동양지루 저금까지도 안진지도 못하는 몸으로  
 시동이 있기 때문에 경우 경우 몸을 지탱 해가면서  
 예전 용문중학에서 시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내 시우이를 또 시킴 받았는데  
 화려하게도 못하고 그저 필수품 정도로  
 갖추어서 초라하게 보낸 것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장만 해가면서 사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꺼라 여겨려를 했지만, 많이 갖는게



3

귀중한 줄을 모른다면서 못해 주는 마음을  
 어찌해 자기 스스로 위로라도 하듯이 맞았나  
 이제 받은것은 돈은 시동생 들인데 <sup>남</sup>자니까  
 아픈애 강가든 가도 편찮다면서 자립하도록 한채  
 작년애 골치아픈 고장을 떠 나온 것임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책과 <sup>필</sup>그 적금이나  
 해가며 오순도순 잘 살자고 약속한 것임니다  
 작년 일년 동안 살면서 적금 150 만원을 모으고  
 전자제품은 하나씩 살때 아다 나온이런때까  
 다 있나 싶어 정말 행복했던 것임니다  
 지친강남!

여과의 이같은 소망 보이지 않음은 적은 행복이  
 또 <sup>하</sup>필을 가져온 것임니다

작년애 모아본 150 만원은 또 주자는 것임니다  
 그래서 이제도 중수 없다며 20의 가슴에  
 화를 지른 것임니다 이것이 내조를 잘 못  
 것년외로 <sup>24만</sup>생활비 총 11만원 가운데 8 만원을  
 부모님께 갖다 드린다는 것임니다 6인 식구미  
 3만원 가치인 쌀 사고 나면 찬풍도  
 없읍니다 빛을 쓰면 된다기에 빛내가지곤  
 하루 <sup>24</sup>만 생활비 백년을 살아도 안정이



4

안되는 생활이 저도 싫었던 것입니다  
 변노 하신 어머니분이 [redacted] 밑에서 시동생과  
 생활을 하는데 [redacted] 기침은 오르 내리며  
 맥추나 산나물 따위를 뜯어서 시강에 깔면  
 하루에 500원 꼴은 하신답니다 그후으로 쌀값을  
 볼때고 세금을 내고 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이 나기 이틀전에 맥내 시동생이 살려  
 내려온 것이니 일주일 전부터 부부간에  
 싸워서 분위기가 험악하니가 있을 처지가  
 못되어서 [redacted] 큰힘 덕으로 간것이지요  
 그래도 저도 모라고 했읍니다 퇴거를 이리  
 모래기고 모래간 밤을 구해 놓는다그 얘기했지요  
 천하는 시동생이 어머니의 고생을 그대로  
 애기 아바에게 보고를 한것입니다 화장실 세균  
 한품이라든 털 내실려고 순대병 마저 산꼭대기  
 큰 모래 가신다는 야야기 까지 다 했읍니다  
 그런 골치 아픈 조건이 애기 아바를 또 미치게  
 만든것이니가 기쁨이나 화심이 지주한데  
 또 자극을 받은것입니다 제사날이 되면 일일이  
 간수가 없잖읍니까 그러고 [redacted] 목을 향해서  
 고통이 많아 제사가 끝날 시간까지 2시간 앉아서

기



5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를 기쁘게  
 해 줘야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생신 잔치를 벌려도 바빠보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루 종일 불러 드립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호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항상 제에게  
 이야기 했거든요. '당신이 잘 해야 나중에  
 우리는 부끄러운 없이 우리 자식에게 호를 받을수  
 있잖아요.'

지정장보 근항에서는 낙문종 학교에 있을때  
 충효교육 담당교사로서 연구 발표회를 열은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호평이 매우 커서 상주군  
 교육장 상까지 받았거든요.

근항을 떠날때 교육장보께서 일부러  
 불러놓고 충효교육 담당교사로서 향도를 위해  
 있게끔 해주셨고 상주읍 생산고등학교로  
 와 딸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지요. 너무나 가정적으로  
 골리개 아파서 근항을 떠날때까지 근항이  
 필요하다고 느껴질때 안했거든요. 하고 돈이

사망했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있을줄 누가 알겠  
 었지. 골리개 아파도 근항이 제일이던걸

유가

5



한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가랑이 밑마니 귀중한 기록  
있었음니다 어린것들이 아바바 돈뎌어 기어옵니다  
제가 갖은 것어노 기가 죽음니다 남편이  
피인이란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한마디 잘못한게 그럴게  
근저에 된중은 정말 몰랐음니다  
이성을 잃은 그이로서는 기억이 있을수 있음니다  
돈에 대해 신경을 쓰고 근엄혼간을 중은속에  
숨만 쓰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은 것임니다  
그날저녁 바래드 준다고 따라온 총각을

27



8

남이 쓰러서 팔을 세면 밖에 다 갔어 부쳤음니다.  
 이틀날 아침 주민들의 신고로 집사에 가 있을 때  
 도장에 다니는 부장장이라는 총각이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반이 지나가는 걸 불러서 어제 저녁  
 심취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영웅한 사람에게  
 사과를 했음니다 그래서 제가 영웅한 사람한테  
 사과를 한 다음에 그랬더니 부고대위 어쩔 줄  
 몰라 한 적이 있음니다 특히 그 정도로 취했는데  
 어떻게 해서 증인들 중에서는 술이 안 체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증인이 되려면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됐지 왜 거짓을 합니까  
 평소에도 하루 건너 하루 술 너무나 술은 좋아  
 합니다 술로써 모든걸 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음니다  
 그러나 폭주함니다 몸도 약함니다 혈압도 높음니다  
 어쩔까지 남들은 신치스럽게 보약을 먹고 몸도  
 가꾸지만 경제 사정이 허락을 안하고 약거정은  
 결해서 한번 하연 어머니도 한침 못해 드리는데  
 나만 어떻게 젊음게 보약을 마시냐면서 어쩔로  
 있음니다 그래서 보나 약 한침 못 먹어서 술한 잔만  
 남이 되어도 다른사람 열잔 먹은 정도의  
 술에 취한다고 하함니다 선생님들 말씀으로

서

830



9

증빙 등에 취해 형사수설 한다고 끝나  
술에 취했을 때와 안 취했을 때와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어제 온 새 색시는 정말 애잔할 수가  
있음니다

술이 취하면 뺨이 너무나 붉고 눈물이  
지랄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혼자서  
다 이야기 합니다

개 앞에서 나오는데도 지랄이요 것인데  
그다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틀간 이야기 하면 생사람 같는데도  
것입니다

지청장님! 술 한잔만 배 놓으면 한잔더도  
나우는데라고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근본이 착한 저의 남편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애기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뺨을 붉게 하며

아빠 온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소원은

지청장님께서 품이 주신수 있으시면. 자식들을  
돌보아 주시길, 사리에 응신할수 있도록

심정을 기우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들이 다 우습습니다



10

법에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다면  
같은의 식인으로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벌잡니다

지청장님!

지청장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따뜻한 가정이 좋은 피로이 지친 지청장님은  
맛아 쓰리겠습니까.

저는 왜 남편을 높은 산이 둘러싸인  
저만 수용소이다 버려 두어야 할지

변희준 갔을 때 구슬프게도 악대들의  
반주거 저의 가슴을 때려 울렸읍니다

그만 미치고 싶었읍니다 차라리 미치고  
미쳐서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읍니다

그이와 저는 늘 "희심곡"을 즐겨 들었읍니다

착하게 때 묻지 않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

희심곡에 가사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

그러나 지금만 눈으로 세상을 보니 너무나

저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이 믿기가 싫습니

자각만 진심을 외면하려고 하니까요.

032

지청장님 눈물은 머금고 앓는 만보말정도로

우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가 믿어

30



평화와 행복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어지로 만들면 법은 더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를 잘 알지 못하는 증인들의 말을  
만지 마시고

10여년은 같이 살아온 저의 법집행을  
말이 주시길 바랍니다

근아운 은혜를 베풀시면 더욱 노력하여

참된 삶을 할것이고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불의를 일으키지  
않는 저의 자식들을 만들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에 충성 하는길 아님까지

지청장님 /

불쌍한 그이의 실인을 용서 하시고

직장을 퇴직하고 용기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내조의 힘이 부족한 저 거듭 용서 바랍니다

가족이 가야 할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77.8.26.채



검사 아저씨께

5025

8/25/89

검사 아저씨 : 우리 아버지를 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한번 잡수시고 말한번 잘못했어요  
 아빠가 없으니 공부도 제 께로 안되고  
 아버지를 안보니까 아빠 얼굴도 잊어버렸  
 고 네동생 [redacted] 도 매일 앞머리를 길고나  
 시 매일 아침에 온다고 해요 언니가 인  
 제 아침에 오라고 말을하니까 매일 내일  
 아침에 온다고 합니다 검사아저씨 꼭 우  
 리 아버지를 빨리 내 주셔요  
 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우리 아  
 버지는 우리 할머니 집에 잔다고해서 그날 낮  
 에 나가서 밤에 술을 잡수시고 돈 8 만 원  
 을 반씩 잡아 적었는것 뿐입니다 검사아  
 저씨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검사아저씨 우리 어머니 걱정을하시고  
 우리는 매일 할머니께 무중만들고 아버지가  
 나오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  
 리 아버지가 나오실때까지 기다릴게요  
 1979. 8월 26일 윤은은 [redacted] 국민학교 제2학년  
 이 [redacted] 올림



감사 아저씨께

검찰청에 게시는 감사아저씨 안녕하십니까?

감사 아저씨 우리 아빠 내 주석요

우리 아빠 아두린 죄도 없어요

아빠가 앓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겠어요

우리 배 삼매 우리 엄마는 어찌 구요

감사 아저씨 저는

‘내일이라도 남북통일이 되면 아빠가 나오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한두번 하게 하나지요

감사 아저씨 제 말 똑똑히 들어시고 우리 아빠  
풀어 주석요

우리 아빠는 술한 번 걸수시고 햇말 한번 하셨어요  
그것이 죄인가요

아저씨 하루 바빠 우리 아빠 내 주석요

어할머니와 언니가 아빠 이야기를 주고 받으실  
때 저는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  
리지요

저의 조국은 우리 아빠 나오시는 것이어요

아빠 나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저는 아빠 얼굴을 그리며

별써 20일이 병원을 떠나가요



2

저는 아빠 얼굴을 잊어버려서 몇번이고  
 다시 그려보곤 했어요!  
 검사 아저씨 저는 아빠 보고 싶어 죽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생각 하  
 고 계실까요?  
 아버지가 안아 주던 모습이 친구한테 떠올랐고  
 오손도손 정답게 살던 우리 네남매 우리 엄마  
 아빠중 어느사람이 돈벌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물론 아저씨께서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그를 치셨으니 아니 안타  
 까울리가 없어요  
 이제 남은 네남매와 엄마는 죽어서 목숨을  
 잃어라는 것이어? 대답하여 주세요  
 아니지요 우리도 목숨만은 건져야 해  
 그러나 제 아무리 목숨을 건져도 누가무엇을 하고  
 살니까  
 그러니 우리라도 목숨을 건져 주시려고 하면 아버지  
 를 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필요한 아버지 아빠 좋은 아버지  
 예요 꼭내 주셔요, 검사 아저씨 안녕히 계시고  
 1979년 8월 26일 일요일 이 [redacted] 올림

3